

송성환 도의장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참석해 촉구 “중앙정부 업무 이양 등 지방의회 역할 중요”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은 25일 대전 오례라웨딩컨벤션홀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촉구했다.

송 의장은 이날 건의문을 통해 “지방의원은 당선 이후 방대한 집행기관 업무와 관역자치단체별로 5조에서 20조원에 이르는 예산·결산 심사, 조례안 등 수백여 건의 안건을 심사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와 관련된 기본지

식은 의정활동을 경험하면서 습득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정부 업무의 지속적인 지방이양과 자체 예산규모 확대로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은 중요해지고 지방의원을 향한 주민의 눈높이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이런데도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높여줄 공식적인 행정기구 및 교육기관은 국회의정연수원과 지방인재개발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장은 그러면서 “지방의원 3,751명과 사무처 직원 5,500여명을 위한 교육전용공간을 마련, 상임위원회별 전문화된 맞춤형 교육과정이 제공돼야 한다”며 “지방의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법에 규정된 것처럼 국가가 지자체와 함께 노력해야 하고 그 일환으로 지방의정연수원을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밖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지원 확대,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 합리적 조정 촉구 건의안 등의 안건을 채택했다.

또한 송성환 의장 등 전국시도의회의장들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와 세종 총리공관에서 만찬간담회를 갖고 지방의정연수원 설립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통과 등 주요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한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0일 강원도 산발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고 일상생활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재난구호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김진성 기자

올 지자체 추경 13.5조 편성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 약 13조5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확정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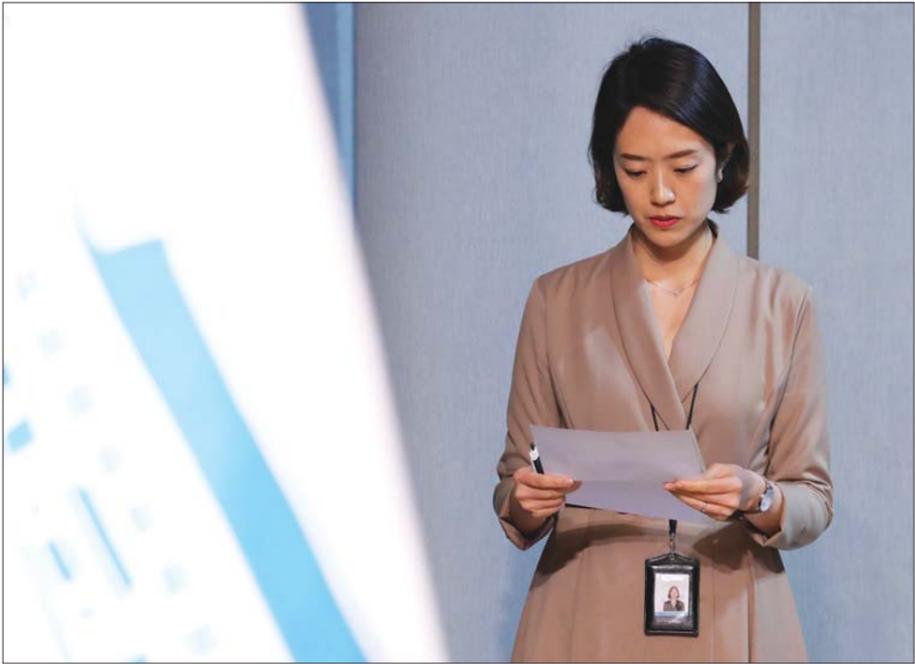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까지 지방의회 의결 기준으로 광역·기초단체 156곳(광역 10곳·기초 146곳)이 총 13조491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추경은 본예산보다 돈이 더 필요할 때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올해 전체 지자체 본예산은 231조원이다.

이번 추경 규모는 지난해 7조7000억원보다 75.2% 증가한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 10조4000억원을 편성한 이래 가장 많다.

이번 추경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SOC(사회간접자본)와 일자리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복안이다. 이는 정부가 기관의 실적평가 지표 내 일자리(3~45%)와 SOC(2~5%) 비중을 늘릴 영향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의 추경 집행 실적을 확인해 우수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상반기 목표 집행율은 58.5%(광역 63.5%·기초 55.5%)이다. /뉴시스



‘첫 브리핑’ 기다리는 신임 청와대 대변인 부대변인을 임명했다.

고민정 신임 청와대 대변인이 2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첫 번째 브리핑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신임 대변인에 고민정

정부,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26건 승인

정부가 신제품 출시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동안 26건의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5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100일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한 뒤 이 같이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17일 정보통신 융합 분야와 산업융합 분야 등 두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처음 시행한 이래 100일 동안 26건의 승인이 완료됐다.

정부는 시행 한 달 만에 국회 앞 마당에 1호 과제로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는 등 국회와 정부,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로 빠르게 제도가 정착하

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행 한 달 내 첫 승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6건을 완료했고, 이달 말부터 5월까지 추가로 20여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달 초 금융혁신 분야와 7월말 지역 혁신 분야에 대한 규제 효과를 위한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올해 안에 100여건 이상 적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시스

정부는 금융 분야 중심인 외국과 달리 우리는 산업 전반의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시행 중으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이 창출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개선을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재원을 확보, 법률 자문과 신청서 작성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 달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4개 부처와 전담지원기관의 조직·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뉴시스

“동물용의약품 효능 평가센터 구축 예산 반영을”

평화당 조배숙 의원, 농식품부 차관과 간담회서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이 내년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조배숙 의원은 25일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차관과 간담회를 갖고,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및 국가 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 창업허브 구축 사업 등 전북도와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신규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전북지역의 생명공학 인프라와 연계해 글로벌 수준의 국가 검정기준에 맞는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를 구축하는 것은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연구개발 능력을 향상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우수한 품질의 동물용의약품 생산 및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 만큼, 농식

품부가 본 사업을 내년도 신규사업 예산으로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익산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서는 조속한 2단계 사업추진과 다양한 육성 지원 방안을 담은 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의 통과가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조배숙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부처별 예산 편성이 5월말 마무리 되는 만큼, 전북과 익산의 발전을 견인할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국비 예산을 정부 예산안에 담기 위해 농식품부를 비롯한 각 부처 예산 담당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사업은 총사업비 250억(국비 125억)을 투입, 동물용의약품 등의 품목 허가시 제출되는 유효성·안전성 시험성적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전문 시험실시 기관을 설립하는 사업이다. /김진성 기자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영구 지원 최대 90%까지 확대

평화당 김종희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올해 연말로 예정된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영구 지원하고, 지원 수준도 현행 50%에서 최대 90%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해수위 김종희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시·부안군)은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대비를 통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납입보험료 지원 기한을 연장하고, 지원 범위도 대폭 상향하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소득감소를 고려하여 1995년부터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50%)하고 있지만, 2019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이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 지원이 종료되면, 38만 명의 농어업인이 내

년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연금수급 기회를 얻지 못해 장기적 노후소득 마련이 어려워진다.

개정안은 ▲일몰제로 적용되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영구히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지원수준도 연금보험료의 최대 90%까지로 확대했다.

김종희 의원은 “정부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일몰기한을 두 번 연장하고 지난 1월 국민연금공단이 일몰시한을 연장해 계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 정책이 농민들 노후준비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문재인 정부는 10인 미만 기업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연금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며, “국민연금공단이 산정한 2017년 농어업인 소득월액이 109만원임을 고려하면 농어업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한도도 당연히 최대 90%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제34회 의견문화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21세기 청소년에게
2019. 5. 4(토)-5. 6(일)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교육터전이 되겠습니다.
오수외국어원 및 의견관광지 일원

자연과 함께하는 최고의 체험 교육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사선2길 96-24
전화 063-644-2526 www.ytc.imsil.go.kr